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19, 갈라디아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역사와 문학 강의 19강 갈라디아서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데이브 매튜슨 박사.

좋아, 시작해 보자.

기도로 열어갑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함께했을 때 갈라디아서를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책을 통해 작업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월요일이 일주일일 될 것 같으니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목요일 밤에는 또 다른 선택 사항이지만 추가 신용 검토 세션이 있습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다음 수업시간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파악되는 대로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목요일 밤에는 추가 학점을 위한 복습 세션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일주일일 2차 시험이 됩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휴식을 취하고 심을 얻고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남은 학기 동안 잘 지낼 수 있는 에너지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당신의 계시의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을 비판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가 말한 갈라디아서는 그 지방의 남쪽 부분인 로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한 무리의 교회들에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곳은 바울이 방문했을 교회 집단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남부나 오늘날의 터키를 거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학자들이 유대교주의자라고 명명한 그룹, 즉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기독교인 그룹, 즉 남성을 위한 할례를 의미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법, 음식 법, 특히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 가르치거나 침투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약의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독자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이 율법에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거나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 보고 끝난 것 같아요.

나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책 전체에 걸쳐 대비를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두 원으로 표현한 대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원은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원 사이의 대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제시하신 왕국의 메시지, 남자와 여자가 이미 왕국에 들어가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아직 완전하고 완전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죄와 사망이 특징이고 지배하는 이 현 세상의 통제 아래 있거나 그 영역 안에 있는 삶과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인 육체를 의미합니다. 나는 이 악한 시대의 영향을 받아 약하고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울도 율법을 이 범주에 두는 것은 율법이 죄가 있거나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명과 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특징지어지는 권세나 통제나 영향력의 또 다른 영역,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영역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과 생명을 이 두 가지 개념적 유형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삶과 죽음으로 특징지어지는 한 영역은 이 악한 시대, 이 세상의 영향 아래 있는 나의 삶이 될 것이며, 다른 영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생명과 의와 소유로 특징지어지는 다른 영역이 될 것입니다. 성령.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대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가 실제로 어떤 종류의 편지인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세기 그리스-로마 연설이나 그리스-로마 유형의 철학적 연설에 비추어 갈라디아서를 읽는 데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우리가 수사적 연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바로 제가 찾던 단어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1세기까지 특정 요점을 논하는 적절한 방법을 설명하는 수사적 유형의 연설을 구성하는 적절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핸드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자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 특정한 패턴에 따라 연설을 구성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실제로 단순히 문자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 1세기의 전형적인 수사법에 부합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점에서 확실히 타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도들이 제안한 행동 방침을 채택하지 않고 바울이 제안하는 행동 방침을 채택하도록 독자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수사적 연설이 단지 티켓, 그가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구할 수 있는 소위 핸드북과 이러한 수사적 연설이 어떻게 자주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기록 내에서, 특히 누군가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변호하는 연설을 구성하는 법정에서. 이번에도 연설에는 적절한 계획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처음 다섯 절은 서신서가 시작되는 것처럼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매우 유사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의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1세기의 수사적 연설처럼 발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연설은 사건에 대한 진술이자 이슈나 문제에 대한 진술인 권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1장부터 6장부터 11장까지를 1세기 그리스-로마 연설의 권고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은 교육의 일환으로 그리스-로마 수사법을 배웠거나 그리스-로마 언어 패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권고, 서술, 일부 수사 연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은 사건의 주요 논제와 주요 사실을 서술하거나 설명하는 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1장의 나머지 부분과 2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일종의 진술과 연습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 명제(propositio)가 나올 것입니다. 이 제안은 사건의 합의점을 요약한 것이며, 주로 논의될 논제입니다. 그래서 제안은. 그런 다음 probatio 라고 알려진 probatio를 수행하면 자신의 입장에 대한 모든 지원과 증거를 간단히 나열하고 정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왜 무죄인지 유죄인지 법원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왜 유죄인지, 왜 유죄가 입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 사항입니다. 일부 연설에서는 특히 과거의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미래에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연설에는 종종 독자들이 미래에 취해야 할 행동 과정을 설득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권고 또는 명령인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위한 5장의 나머지 부분부터 6장의 대부분은 종종 권고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로마 연설의 권고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대부분의 전형적인 1세기 편지들처럼 편지를 끝맺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서신의 전형적인 서론과 결론으로 묶인 수사적 연설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바울이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면 구두로 전할 수 있었거나 전달했을 구두 수사 연설에 대한 서면 설명을 포함하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그가 단순히 그와 그의 독자들이 익숙했을 일반적인 수사적 연설 패턴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유대교주의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바울이 권장하는 길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고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의 칭의와 구원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전체에서 그리스-로마식 말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아마도 1세기의 수사학적 설득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내 말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신했을 때, 그는 독자들을 설득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사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형식적 표식인 땅콩 만화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놓고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고 여러분은 상자와 순서를 식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자들, 말풍선, 그런 것들, 실제로는 인간처럼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모습을 닮은 과장된 캐릭터들, 그런 것들이 이것이 만화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종류의 문헌인지 알려줄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울이 단순히 전형적인 1세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매우 대중적이고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계획을 의심하며 바울이 전형적인 1세기 수사적 연설 패턴을 따랐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단지 1세기 편지를 쓰는 전형적인

방식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권면, 내레이션, 제안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서신, 소개를 따르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 너무 화가 나서 감사를 생략합니다. 편지, 권고, 바울이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명령, 그리고 전형적인 1세기 편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갈라디아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형적인 1세기 유형의 수사적 연설을 따른 것으로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그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지, 아니면 소아시아 전역을 여행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바울이 전형적인 1세기 편지를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이것을 의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의 첫 번째 독자들도 이런 식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읽을 때, 책의 시작 부분, 즉 서문 다음에 그가 자신과 독자를 식별하는 전형적인 서신 서문을 보면 처음 두 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비록 우리가 이것을 서술로 이야기해야 할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1장 끝과 2장에서 바울은 유대교에서의 초기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전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삶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바울의 회심과 관련하여 이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해서 점점 환멸을 느끼고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본문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 2장에서 바울은 유대교에서의 삶에 완전히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의 조상 종교를 지키는 데 너무 열중하고 열심이어서 심지어 율법과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초반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양한 유대 운동을 기억하신다면 바울은 일종의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개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바울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는 자신이 선한 유대인이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켰고 이런저런 일을 했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셨고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했고 그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임명을 받았느니라. 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부분인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독자들 중 일부가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가 교회를 개척한 몇몇 도시에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희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교인들에게 미혹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 즉 유대인으로서의 삶과 개종을 매우 간략하게 연습합니까? 글썄요, 몇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선, 그가 왜 당신의 노트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 묻기 전에, 저는 또한 1장의 처음 네 구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장의 처음 네 구절에서 바울이 서신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여전히 서간 서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편지의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독자들이 이미 자신의 편에 서게 하고 자신의 주장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위임으로나 인간의 권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 흥미롭네요.

바울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문에 있는 그의 다른 편지들에서 그는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임명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그의 복음은 다른 어떤 인간의 권위에 의해서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위임으로나 인간의 권세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은 갈라디아 교회로 가십시오. 그곳은 갈라디아 남부 지방과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몇몇 도시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들으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현 악한 세대에서 속량하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이제 바울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말하는 1장과 2장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나는 인간의 권위나 인간의 위임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나 위임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이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원이 현재의 악한 시대를 나타낸다면, 내가 옳다면 바울이 그 안에 율법을 두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여러분은 이미 현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었고,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 세대를 천국이라 부르셨느니라. 이제 당신은 생명과 의와 성령이 있는 새로운 영역에 속해 있지만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여기에 율법을 넣을 현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독자들을 제쳐두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이미 현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은 더 이상 그들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3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율법을 이 범주에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언약, 구속력 있는 율법, 모세의 구속력 있는 언약의 일부인 율법에는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이 세 가지와 동일하고 그것이 나쁘거나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생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4절에서 너희가 이 악한 세대인 악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법을 이 범주에 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1장 4절의 내용에 그들이 동의하도록 할 수 있었다면, 율법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구속하는 권위가 아니라는 점에도 동의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나는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의 일부인 이 구속력 있는 법안에 관해서는 바울은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미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바울은 독자들이 나중에 그가 말할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의 그의 삶에 대한 리허설과 함께 1장과 2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갈라디아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초기 유대교 생활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를 믿었으니 이는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훨씬 더 열심이 있었음이라. 따라서 이 두 구절은 유대교에서의 바울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와서 묻습니다. 왜 그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인간과 협의하지 마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곧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개종했을 때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1장과 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바울의 회심 직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 번, 사도행전에서 읽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포함하여 바울의 회심 이후에 일어난 주요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이제 문제는 바울이 유대교에서의 자신의 삶과 개종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개종 직후에 행한 몇 가지 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1장의 첫 번째 진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은 인간의 결정이나 인간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일어난 일은 유대교도 중 일부가 실제로 바울의 사도적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사람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며 단순히 자칭 사도이거나 그와 유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 그는 일종의 배신자입니다.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의 참된 사도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기둥 인물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저명한 사도들입니다. 바울은 일탈자이고 일종의 배신자이며 사도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에서 실제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몇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회심 전, 회심 중, 회심 후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단순한 인간에게서 복음을 받은 적이 단 한

변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회심한 후 즉시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인간에게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쓰러뜨리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허설로는 이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열성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준비하기 이전에도, 도중에도, 이후에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결과로만 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일종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일부 유대교인들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변태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여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방금 말했듯이 그는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간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직접 고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다른 누구로부터도 독립적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또한 그의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모순되지 않으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독립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이 복음이 어떤 인간의 권위와도 무관하게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존이 아니라 그의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 사도들에 대한 독립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예루살렘 사도들에 대한 의존성을 보여주는 사이에서 견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바울이 사도행전에 와서 이 도시들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 순종하지 않고 오로지 은혜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은 바울이 꾸며내거나 왜곡한 왜곡된 복음이나 왜곡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복음인데, 그런데 이 중요한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것이 유효한 복음임을 받아들이고 확증하고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독자들이 이 유대교도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받은 이 복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매우 간략하게 여러분이 로마서와 중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울이 나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담대하게 말한 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부터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함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단지 율법이든 율법의 행위이든 대부분 그의 서신에서 그는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행위나 모세의 율법을 고수하거나 엄매는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문구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거나 의롭다 함을 얻거나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은, 왜 그럴까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왜 그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에서 전통적으로 마틴 루터가 율법의 행위로 바울이 의미하는 율법주의, 즉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선행을 율법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얻기 위해 율법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새로운 관점 또는 새로운 모습이라는 접근법을 교과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극단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고 읽는 방식과 그의 율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샌더스(Sanders)와 제임스 던(James Dunn)과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NT Wright의 글에 익숙하신 분이 계시다면 NT Wright, WRIGHT, NT Wright의 글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Paul이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주장이 아니라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또는 배타주의. 즉,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종의 규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유대교인들이 율법주의를 장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구원을 유대인으로서의 삶에만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좁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려는 것은 구원은 단지 유대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모습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주요 쟁점을 시사합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하나가 된 사람들만인가, 아니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삶을 살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교 아래서 살지 않고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화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에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의 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율법주의 때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배타주의와 민족주의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제한적이고, 구원을 너무 많이 제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을 유대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너무 많이 제한하는 것이다. 유대교 아래서의 삶. 제가 보기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율타리를 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에 그렇게 뚜렷한 구분을 둘 이유가 실제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마틴 루터가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문제의 일부이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제안했을 때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유대교에 동화되는 능력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3장 10절에서 제가 여기서 언급한 본문은 또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3장 10절에서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 이라 .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서 그는 마틴 루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도 율법에 근거하여 의롭게 되려면 완전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문제는 독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틴 루터의 요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Paul의 진술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의한 의를 추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마틴 루터였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내용을 여전히 유효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둘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이 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 대한 저주를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확신하며, 여기서 새로운 모습이나 새로운 관점이 중요하며, 바울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법이란 규칙과 규정의 목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이 전체 모세 언약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래 이스라엘과 맺으신 모든 언약. 바울에 따르면 율법과 함께 그 전체 기간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독자들에게 왜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기를 원하느냐고 말하고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니 거기 거하라. 둘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유효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모세 언약의 일부인 율법의 주요 기능은 중단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왜 유대교인들에게 굴복하고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기를 원하는가? 이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어떤 법에서도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오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는 의미로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요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의 일부로서 구속력 있는 명령과 규칙의 체계인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이제 그분을 통해 경험하는 새 언약 안에서 사라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에서 이 두 번째 요점은 여러분의 노트에 있는 다음 관찰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3장과 4장의 중요성입니다. 3장과 4장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일련의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스-로마 연설의 시험 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련의 증거나 주장을 정리하여 독자들을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첫 번째가 3장 1절부터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논증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비록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보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에 반대하고 싶어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반응에 매우 충격을 받고 속상하며 분개했습니다.

그는 말한다, 누가 너를 흘렸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눈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여 그들이 적절한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주장을 논하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들은 것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바울은 성령에게 호소합니까? 여기서 성령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영어 번역에 Spirit 대문자가 있으면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 가지 묻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들은 것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이 그의 사건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또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변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제 말은, 그게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즉, 그는 왜 성령을 불러내는가? 그들은 성령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과 같은 사도행전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성령께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말은, 좀 이상하고 주관적인 것 같네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따듯하고 흐릿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증거입니까? 그가 성령께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경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신약성서에서, 특히 바울에게서 우리는 바울이 성령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가 이제 성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폴은 그걸 어디서 얻었나요? 매우 좋은. 성령을 보내시고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것을 얻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를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새 언약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새 언약 성령을 받았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맥락에서 신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방언과 다른 기적적인 일들이 그 증거라고 가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바울의 주장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새 언약 약속에 따라 성령을 증거로 받았느냐 하면 성령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무슨 근거로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이 새 언약의 성령을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 받았느냐, 아니면 믿어서 받았느냐? 물론 대답은,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결론은, 그렇다면 왜 법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구약에 약속하신 새 언약 성령이요, 사도 행전 2장에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왜 구약의 율법을 추가해야 합니까?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주장이자 경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사실, 다른 질문들을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헛되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바울은 그들의 경험에 호소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새 언약 성령을 체험하고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인데, 만일 그들이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고 행했다면 구약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거기에 추가되나요? 그들은 이미 새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새 언약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구약성경 3장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하는 방식은 모세의 율법이 일시적인 역할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역사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논증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바울이 한 일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구원의 약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구원이나 칭의,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성령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1세기에 대부분의 유대교도들은 이것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큰 나라의 약속,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칭의의 약속, 성령받음, 이것이 다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너희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아니, 아니,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 바울의 계획은 이보다 더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일시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화살표를 그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경험되는 주된 방법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일시적인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디 보자, 나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일상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연장이 일단 승인되면 누구도 그것에 추가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라 하시되 많은 사람과 같이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자손 곧 그리스도라 하셨으니 어디 보자. 그러면 그는 이것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요점은 이것이다.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은 하나님께서 전에 세우신 언약,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의 요점은 모세 언약이 이것을 뒤집거나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다면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다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일시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율법의 주된 기능은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시해도 될까요? 내 생각에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어떻게 읽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법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의 일부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요점을 보셨나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지 몇 년 후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설명하듯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키실 때까지 일시적인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법은 일시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고 이제 그 역할은 끝났다.

하지만 세 번째 요점인 문화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문화에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이 사용하는 다양한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단지 약속을 언급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그리스도를 언급할 것이다. 때때로 그는 믿음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같은 것을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칭의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용한 첫 번째 은유는 감옥이나 간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처럼 기능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나뻐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법이 매우 제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감옥이나 감옥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어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구원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은유는 교도관, 감옥의 이미지 또는 누군가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까지 율법이 우리를 징계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징계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는 1세기의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 자녀(보통 아들)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징계 담당자를 고용했습니다. 여기의 이미지는 당신에게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교사라기보다는 당신을 문제로부터 지켜주는 징계자나 베이비시터에 가깝습니다.

즉, 당신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징계자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그 징계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비유를 사용하여 하고 있는 것은 징계자가 어린이가 성숙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그들의 삶에서 기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법이 징계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실 때까지 일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의 비유를 사용하고, 징계하는 자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와 삶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다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 모든 이미지와 구약성서 자체를 활용하여 율법이 일시적인 역할만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일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구원을 성취하고 약속하신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을 때, 모세 율법은 더 이상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왜 그것에 복종하고 싶어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모세의 율법에도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교도들에게 독자들이 그렇게 성급히 굴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오. 율법을 순종하는 일 외에는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성령, 새 언약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구약을 보지 않았습니까? 간수와 징계사에 대한 당신의 문화적 이미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서 모세 율법이 일시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제 그 역할은 끝났으니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왜 뒤로 물러나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기를 원했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질문이 여전히 제기됩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물어볼 한 가지 질문은 '모세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그러나 둘째,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무나 책임, 또는 어떤 법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갈라디아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질문은... 내 말은, 바라건대, 바울은 독자들이 이 유대교도들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율법이나 성령에 관한 신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독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이 유대교도들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약역사와 문학 강의 19강 갈라디아서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